

# IoT·5G·빅스비 중심 업계 혁신 주도 박차

# 올레드 TV 성장 발판 마련 프리미엄 시장 리더십 강화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뉴 빅스비’ 플랫폼 본격 확산  
라이프스타일 제품 다양화

“삼성전자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기기, 5G를 통한 연결성, ‘빅스비’를 중심으로 한 AI(인공지능)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업계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은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19 개막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가 초일류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업계 리더로서 가진 비전을 밝혔다.

김 사장은 2019년 CE(소비자 가전) 부문 주요 사업 방향으로 ▲초대형 스크린 트렌드를 주도할 8K TV 시장 확대 ▲인텔리전스 플랫폼 빅스비 본격 확산 ▲라이프스타일 제품 다양화를 강조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TV 대형화 트렌드 속에서 8K TV를 통해 TV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삼성전자 ‘QLED 8K’를 첫 출시했다.

QLED 8K에 탑재된 ‘퀵 프로세서 8K’는 최신 AI기술이 접목돼 기존 프로세서 대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 저해상도의 영상도 8K 수준의 화질로 업그레йд해준다.

삼성전자는 실제 QLED 8K 출시 이후 많은 콘텐츠 제작사들로부터 기술 협력을 요청받고 있으며, 파나소닉·하이센스 등 다른 TV 제조사들과 함께 8K 협의회를 결성해 기술 표준화와 확산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개방성과 확장성이 강화된 인텔리전스 플랫폼



김현석 대표이사(사장)이 2019년 삼성전자 가전 부문의 주요 사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S 2019’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 ‘8K QLED TV’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뉴 빅스비’를 모바일뿐만 아니라 TV·가전·전장 등 전사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예를 들어, TV는 개인의 취향을 정확히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에어키본 주변 환경은 물론 소비자 습관을 토대로 최적의 주거 환경을 조성해준다.

삼성전자가 내세우는 빅스비의 비전 중 하나는 개방성이다.

삼성전자 제품에 그치지 않고 타 업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 스마트 TV에 구글·아

2019 삼성전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삼성봇’이 공개됐다. /연합뉴스

마존과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 AI 생태계를 확대했으며, 애플의 아이튠즈 앱을 애플 이외 기기에 처음으로 탑재했다.

라이프스타일 제품은 더욱 다양화한다. 1000여 개의 그림 또는 사진을 액자처럼 보여주는 ‘더 프레임’, TV 자체가 조형물 같은 ‘셰리프 TV’ 등이 삼성전자의 대표적 라이프스타일 제품이다.

김현석 사장은 “소비자 개별 취향과 주거공간,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변화를 줄 수 있는 맞춤형 가전제품을 상반기 안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세운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권봉석 LG전자 사장**  
세계 최고화질·폼 팩터 혁신  
올레드 강점으로 진화 선도

“전체 TV 시장이 정체상황이지만, 올레드 TV 시장은 향후 3년간 2000만대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CD TV 기술 보편화로 인해 올레드 TV로 시장재편이 더욱 빨라져 프리미엄 TV 시장 내 올레드 TV의 지위는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LG전자 MC·HE(모바일·가전)사업본부장 권봉석 사장이 현지 시각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레드 TV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권 사장은 “올레드 TV는 상용화 5년 만에 ‘올레드=프리미엄’ 이미지를 굳히며 확실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며 “LG 올레드 TV는 세계 최고 화질은 물론 폼 팩터(제품 형태) 혁신, 강력한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 프리미엄 TV의 진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얇고 곡면으로 제작이 용이해



LG전자 MC·HE(모바일·가전)사업본부장 권봉석 사장이 현지 시각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올레드의 강점을 기반으로 폼 팩터의 혁신을 이끌어왔다.

현재까지 ▲얇은 패널 뒤에 투명 강화유리를 적용한 ‘픽처 온 글래스’ TV ▲그림 한 장이 벽에 붙어 있는 듯한 ‘월페이퍼’ TV에 이어 이번 CES 2019에서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를 선보였다.

LG전자의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인 LG 씽큐를 토대로 아마존, 애플 등과 인공지능 서비스 연동도 확대한다. TV 리모컨의 전용 버튼을 통해 음성으로 아마

존 쇼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애플 기기 사용자는 LG 인공지능 TV로 iOS의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LG전자는 향후 올레드 TV, 슈퍼 울트라HD TV 각각 초대형 모델을 2배 늘려 대형 TV 시장 정조준할 계획이다.

70인치 이상 TV 라인업을 지난해 대비 2배로 늘려 빠르게 성장하는 초대형 TV 시장 지배력도 키울 계획이다.

한편 권 사장은 새롭게 선보인 롤러블 TV에 대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것이라 우려가 있지만 롤러블은 올레드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기 때문에 롤러블로 만든다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다”며 “다만 구동 매커니즘이 달라져 원가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초기에 수율과 양산체제를 어떻게 잡고 감지에 대해 LG 디스플레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에 대해선 “가격과 이익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소비자가 롤러블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의 가치 관점에서 정할 것”이라며 “소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세운 기자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19’ 개막일인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들이 LG전자의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뉴 빅스비·디지털 콕핏 등... 삼성이 그리는 미래도시

>> 1면 ‘관람객 복적...’서 계속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뉴 빅스비를 채용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스플레이에 사진들을 띄워둘 수도 있고 가족끼리 메모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푸드존 뷰인사이드 기능은 이전 제품과 달리 사물인식 기능이 탑재됐다. 예컨대 냉장고 안에 있는 연어와 파프리카를 선택해 식재료 목록이나 쇼핑목록에 보내거나 두 재료를 이용한 음식 조리법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CES에서 처음 공개한 삼성봇

케어-에어-리테일 등 3종과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삼성봇 케어는 실버 세대의 건강과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로봇으로 사용자의 혈압, 심박, 호흡, 수면 상태를 측정하는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준다. 약을 먹을 시간이 되면 사용자에게 다가와 약을 먹을 시간이라고 안내한다.

삼성봇 에어는 집안 곳곳에 설치된 공기질 센서와 연동해 집안 공기를 관리하고 삼성봇 리테일은 쇼핑물, 음식점 등에서 고객을 응대한다. 전시장에서 삼성봇 리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19’ 개막일인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전문기업 하만과 개발한 미래형 커넥티드카 조종석 ‘디지털 콕핏’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테일에 대한 시연이 이뤄졌는데 고객이 음식점에 들어오자 음식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디저트를 추천하고, 결제까지

끝낸다.

삼성전자가 하만과 공동 개발한 차량용 ‘디지털 콕핏 2019’를 적용한 자동차도 전시장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디지털 콕핏은 아날로그방식의 계기판과 오디오 등으로 구성된 운전석과 조수석 등으로 구성된 운전석과 조수석 전방 영역의 차량 편의기능 제어 장치들을 디지털 전자기기로 구성해 만든 장치다.

디지털 콕핏 2019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3개의 OLED 디스플레이와 1개의 QLED 디스플레이, 뒷좌석에는 2개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스마트싱스와 뉴 빅스비를 통해 차량 내외부의 기기 간 연결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운전석에 앉자 앉으니 곳곳에 있는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다. 전방 주시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보행자, 장애물 등이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운전자는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보내준다.

5G, 뉴 빅스비, 삼성봇 등 미래 기술로 구현된 삼성 시티는 곧 다가올 미래의 도시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삼성전자는 CES 2019가 진행되는 8일부터 11일까지 삼성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세운 기자